

전통마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안동 하회마을, 내앞마을을 중심으로 -

김혜현 함다인

<p>1. 서론</p> <p>1) 연구의 배경 및 목적</p> <p>2) 연구의 범위 및 방법</p> <p>2.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적 고찰</p> <p>1) 선행연구 검토</p> <p>2)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p> <p>3.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의 발달과정</p> <p>1) 안동시</p> <p>2) 하회마을</p> <p>3) 내앞마을</p>	<p>4. 연구대상에 대한 특성과 주민들의 의식</p> <p>1) 경제적 측면</p> <p>2) 환경적 측면</p> <p>3) 사회문화적 측면</p> <p>5.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의 지속가능성</p> <p>1)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의 비교</p> <p>2) 하회마을의 지속가능성</p> <p>3) 내앞마을의 지속가능성</p> <p>6. 결론</p> <p>참고문헌</p>
---	---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100만 명에 달한다. 이 인구의 91.79%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도시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는 빠른 도시화를 겪으며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반대로 농촌지역은 과소화 문제를 겪고 있다. 농촌의 과소화는 전통마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통마을 역시 쇠퇴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마을에 대한 복원과 보존에 관심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전통마을의 보존과 복원사업에 많은 지원과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현재 사람들에게 널리 전통마을로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들이 있다. 이 경우는 1970년대 많은 전문가들이 전통마을의 쇠퇴를 막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지금의 모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전문가들의 노력은 전통마을의 고유한 의미는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에는 초점이 맞춰지지 못했다. 즉 실제로 전통마을의 문화나 사회생활, 경관 등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지나친 관광지화로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지화 된 전통마을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게 자리를 잡았다. 예컨대 안동 하회마을과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한 번쯤은 가보았을 만한 유명한 전통마을이 되었다. 관광지가 된 전통마을들은 전통마을로서의 의미가 많이 쇠퇴되고 이른바 먹방 투어와 같은 부수적인 요소들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장소관측으로서의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관광지화 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전통마을들이 제법 많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와 후자에 해당하는 안동 하회마을과 안동 내앞마을을 비교분석을 통해 고찰하려 한다.

두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측면인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각의 측면에서는 전통마을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적합한 요인들을 추려내어 비교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 현장답사 등의 방법들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삭막한 현대 사회에서 전통마을이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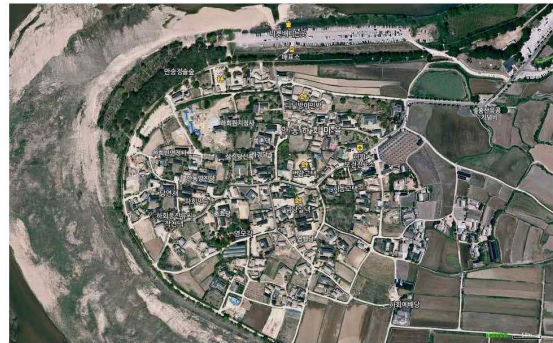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그림 1)에 있는 풍산 류씨 집성촌으로 민속적 전통과 건축물을 잘 보존한 민속마을인 하회마을과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그림 2)에 있는 의성 김씨 집성촌으로 안동에서 34번 국도를 따라 반변천을 끼고 동쪽으로 가다보면 안동대학교 앞 동인문을 만나게 되고 좀 더 가면 있는 내앞마을이다.



<그림1> 내앞마을 지도

출처 : 네이버지도



<그림2> 하회마을 지도

출처 : 네이버지도

내용적 범위는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비교해보고, 주민과 상업종사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의 대표적인 행사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한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의 지속가능성을 경제적측면, 환경적측면, 문화적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이다. 본래 지속가능성의 요소는 경제, 환경, 사회이지만 사회적측면은 현실적으로 지표를 설정하기가 어렵고, 설정한다고 하여도 측정이 어렵다. 하여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의 특성상 집성촌이라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마을을 위하여 사회적측면을 대체할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고 각 측면별로 항목을 설정하여 각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위의 내용을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에 관련한 기존 연구문헌,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헌을 연구하고, 관련제도,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을 대상으로 한 관련 계획 등을 토대로 두 마을의

현황과 현장실태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표 1).

<표1> 지속가능성 각 측면의 구분과 주요 지표

	측면	항목	주요 지표
지 속 가 능 성	경제적 측면	지역경제 성장	· 전통마을의 지역경제 효과 · 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
		경제성장의 문제점	· 문제점에 따른 보완점
	환경적 측면	지역 환경에 대한 영향	· 전통마을의 활성화 후, 지역에 미친 영향
		환경문제 개선	· 환경 문제와 개선점
		시설개보수	· 시설개보수에 대한 인식
	사회 문화적 측면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	· 관광지화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전통마을에 대한 자긍심	· 전통마을의 활성화가 자긍심에 미친 영향
		지역 주민의 체험	·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2.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적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특정 전통마을과 도시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우선 조아라(2010)는 전통주거지역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전주한옥마을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여기에서는 전주한옥마을의 지원적, 경관적, 기능적, 경제적, 참여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한옥마을의 활성화로 인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으로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도출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한옥마을을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논문이다.

송주연(2014)은 한국의 도시성장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서술하였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 동등하게 이해되어야 하며,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다면 성장 중심주의에 빠질 수 있고 환경보호에 초점을 둔다면 생태중심주의, 사회정의에 초점을 둔다면 좌파사회주의에 기울어질 수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동등하게 충족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서술한다.

최병두 외 3인(2004)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도시화 개념적 고찰에 대한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면서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도시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단순히 좁은 의미의 환경과 관련되거나 또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대 및 미래세대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과 발전에 대한 관심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에 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안동시에서 발표한 세계유산활용사업 중장기계획(안동시)에서는 하회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하회마을 활용사업과 관광객을 활용한 사업, 세계유산 지속 가능한 가치 보존을 위한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시스템 등이 설명되었다. 특히 세계유산인 하회마을의 당면과제가 마을 주민 측면, 운영관리 측면, 관람체계 측면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는 하회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남양희(2013)은 내앞마을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하려는 연구를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내앞마을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자연요소와 건축요소, 인물요소 등이 소개되었다. 이로 하여금 내앞마을의 지속가능성에 관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강운정(2013)은 내앞마을에 관한 기획연계에서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주제로 내앞마을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으로의 내앞마을에 관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김미연(2013)은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의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 방법론에 대한 연구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의 제도화에 따른 주민 정주패턴 및 의식 변화 분석, 등재 이후 마을에 발생한 변화 분석, 주민자력형 유지와 관리 방법론 도출에 대하여 약 30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이다.

우선 각 논문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아라(2010)와 남양희(2013), 강운정(2013), 김미연(2013)은 기본적으로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특히나 조아라(2010)의 연구가 전통마을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가장 근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남양희(2013), 강운정(2013)의 논문은 각각 내앞마을의 자연, 건축, 인물요소를 토대로 한 랜드마크를 연구하였다. 이는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연구를 밝혀낸 점에서 연구 대상지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위의 세 논문은 전통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으로 위의 세 논문은 지속가능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척도를 매길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 연구대상 중 내앞마을에 대한 여러 측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송주연(2014)과 최병두 외 3인(2004)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대상이 도시인 것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송주연(2014)은 지속가능성의 측면 중 하나인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 가장 모호한 측면임에도 체계적으로 한국 도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논문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방향성’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환경적인 경각심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1972년 로마클럽의 지구환경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인구, 식량, 생산, 천연자원, 산업발전, 환경오염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델로 미래의 사회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양립 불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1989년 발표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처음 제시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미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의 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형평성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우선사항이 첫째,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은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으로 특히 전 세계 빈곤계층에 대해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둘째,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으로 환경의 한계용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최병두 외 3인, 2004).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모델이 제시되었는데 동심원 모델과 중첩원 모델이 있다. 동심원 모델은 경제, 환경, 사회 간의 관계를 시스템 내의 시스템으로 표현한다. 이 모델은 경제의 모든 영역이 인간 활동과 닿아있다는 점에서 경제가 사회 영역 내에 존재하며, 사회의 범위는 단순한 재화와 서비스 교환 이상의 관계를 포함하면서 경제보다 더 큰 영역을 가진다. 같은 방식으로 사회 영역은 다시 기본적인 필수품을 획득하기 위해 의지하는 환경 영역 내에 완전히 포섭되어 위치한다(송주연, 2015). 중첩원 모델은 경제와 환경, 사회를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진정한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모델로 동심원 모델보다 후에 등장하였지만 더욱 지지를 받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첩원 모델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문화적 측면 동등하게 이해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1) 지역경제 성장, (2) 전통마을의 경제 활성화 를 지표로 하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1) 지역 환경에 대한 영향 (2) 환경문제 개선 (3) 시설개보수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는 (1)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에 대한 영향 (2) 전통마을에 대한 자긍심 (3) 지역 주민의 체험을 지표로 할 것이다.

3.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의 발달과정

1) 안동시

안동은 각 시대별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보고이자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곳이다. 우리가 안동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미래 천년을 내다보며 안동인의 정신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승화시켜 나가기 위함이다.

한국정신문화에 대한 가치는 오늘날 '민족정신'이 피폐되어 가는 혼란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삶의 활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 미래 천년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에서 2006년 7월 4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브랜드를 등록·인정해준 것은 21세기 안동만이 갖고 있는 숭고한 정신문화를 우리의 삶에 파급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¹⁾

행정구역상의 안동은 경상북도 안동시는 1읍 13면 10행정동(42법정동) 274행정리(175법정리)를 가지고 있다. 동쪽은 영양군·청송군, 서쪽은 예천군, 남쪽은 의성군, 북쪽은 영주시·봉화군과 접한다. 경상북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뿐만 아니라 서울 면적의 2.5배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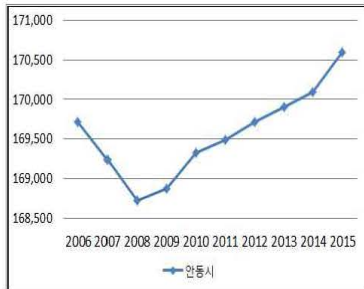
유교문화,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전통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마을로 대한민국에서의 명망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안동시의 인구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63,179명, 73,410세대를 포함하고 있다²⁾. 또한 하회마을이 속한 풍천면의 인구는 4,152명, 2069세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앞마을이 속한 임하면은 3,370명, 1,458세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늘어나고 있는 안동시의 인구는 최근 이전된 도청과 신도시의 영향으로 발전가능성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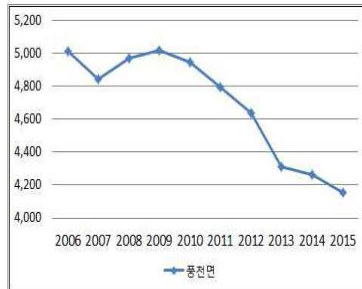
1) 안동시, 안동시소개, <http://www.andong.go.kr/>

2) 안동시, 2016, <http://www.andong.go.kr>, 자료검색일 : 2016.12. 09(외국인을 제외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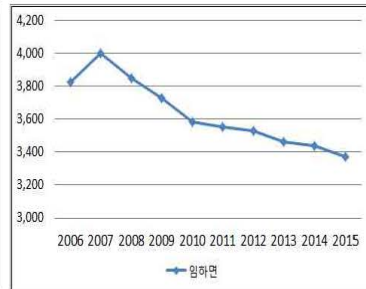
하지만 관공서와 도청이 이전한 곳이 풍천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예천군으로 빠지면서 풍천면의 인구가, 그리고 임하면의 경우 농촌의 과소화 문제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3> 안동시의 인구



<그림4> 풍천면의 인구



<그림5> 임하면의 인구

2) 하회마을

(1) 하회마을의 역사

하회마을은 예부터 대체로 허 씨(許氏)와 안 씨(安氏) 등의 씨족이 모여 살아 온 것으로 추정된다. 1635년(인조 13)의 기록에는 풍산 류 씨(柳氏)가 유력하게 많이 살던 집성촌이라 적혀 있다. 류씨의 입향조는 8세 전서공(典書公) 류종혜(柳從惠)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동쪽 기반은 중흥조 류운룡(柳雲龍)과 류성룡(柳成龍)에 의해 이루어졌다.³⁾ 이러한 풍산 류씨의 집성촌인 하회마을의 이름은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휘감으며 흐른다고 하여 하회(河回)가 되었다.

하회마을은 옛날의 유교적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로 손꼽히기도 하는데, 그 이유에는 지리적 배경이 숨어져 있다. 안동의 지리적 경관을 살펴보면, 안동을 중심으로 하여 경상도 북쪽으로는 소백산맥이 있고 동쪽으로는 태백산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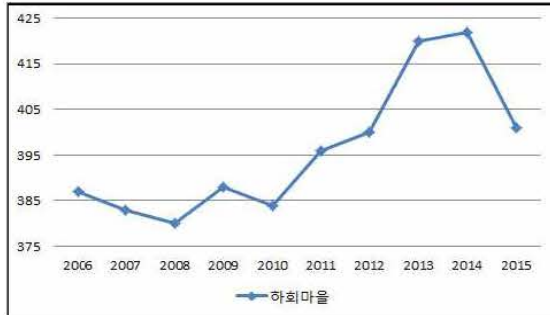
또한 하회마을의 역사적 기록은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중환의 택리지 북거총론을 보면 “무릇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는 바닷가에 사는 것은 강가에 사는 것만 못하고 강가에 사는 것은 시냇가에 사는 것만 못하다. 대개 시냇가에 사는 것도 곡에서 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평지나 난지 모두 오래 살만한 곳이다. 시냇가에 살기 좋은 곳으로는 영남의 도산과 하회를 제일로 친다.”고 기록되어 있다.

안동의 양반들은 본디 벼슬길에 나아가기보다 학문 자체를 연구하고 덕을 기르는 인격의 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학자적 긍지를 지켜왔다. 의리와 용기, 체면을 중요시 하던 안동의 양반들은 그들의 세계관과 이상을 자식들에게 전수하고 이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게 되자 안동사람들이 목숨과 같이 지켜온 선비정신이 비분강해하여 항일의병활동과 애국계몽운동, 독립운동 등 구국활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수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발상지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곳이 바로 안동 하회마을이다(손상탁,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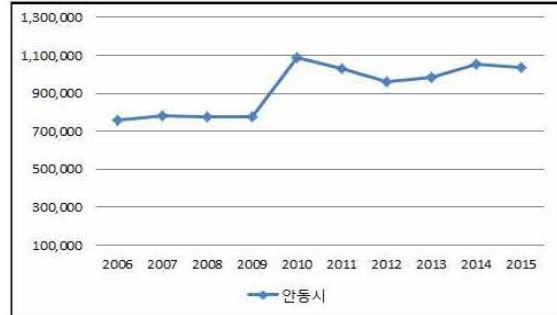
3)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2) 하회마을의 현황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위치한 하회마을은 남쪽으로만 흐르던 낙동강이 하회에 이르러 잠시 동북쪽으로 선회하여 큰 원을 그리며 산을 휘감아 안고 산은 물을 열싸안은 곳에 터잡은 마을이다. 하회마을이 속한 풍천면은 2,391세대, 4,613명이며 하회마을에는 현재 215세대, 401명이 거주하고 있다⁴⁾. 이는 지는 10년 동안의 하회마을의 인구 변화를 보면 2006년도 보다는 늘었지만 2014년에 비하면 21명이 줄어든 수치이다. 이는 2010년에서부터 서서히 늘어오던 하회마을의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든 수치이다(그림 6).



<그림6> 하회마을의 인구



<그림7> 하회마을의 방문객 수

하지만 2010년 7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제 3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마을 주민들이 지켜온 다양한 전통과 풍습들은 이제 세계인들이 지키고 이어가야 할 가치를 지녔다.”라는 뜻에 따라 안동 하회마을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전승되어 오는 다양한 전통과 풍습 중에 이들이 향유한 예술 작품,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학술 및 문화적 성과물, 공동체놀이와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신앙에 관한 무형유산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하회마을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하회마을로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하회마을 내에 이렇게 늘어난 관광객을 위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가이드도 생겨나는 등 하회마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하회마을의 관광객 수의 증가는 위의 그래프와 같다(그림 7).

이러한 관광객 수의 변화는 하회마을의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방문객이 증가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거나 상품을 판매하여 가계소득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하회마을의 문화재가 대부분 건물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훼손의 위험이나 상품화가 될 수 있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도 하회마을과 같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지정된 세계문화유산들 역시 관광객의 지나친 유입으로 그 수용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주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 예로 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민속촌과 같은 관광지로 오인하여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다.

하회마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에는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회마을에는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법이자 큰 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받고 있으며 사찰을 보존하기 위한 전통사찰보존법(1987.11.28.제정, 법률 제3974호), 앞서 언급한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이미지와 정신을 보존하기 위한 독립기년관법(1986.5.9.제정, 법률 제3820호), 그 밖에도 향교재산관리법(1962.1.10.제정, 법률 제 958호) 등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4) 안동시 통계자료, 2015, <http://www.andong.go.kr>, 자료검색일 : 2016.11. 23

3) 내앞마을

(1) 내앞마을의 역사

내앞마을은 신라 56대 경순왕의 넷째 아들인 석(錫)을 시조로 모시는 의성 김씨 문중의 동성 마을이다. 고려 말엽에 김거두(金居斗)가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져감을 보고 안동의 풍산에 내려오게 된 것이 이 일족이 안동에 자리잡게 된 계기이다. 그 후손인 김만근(金萬謹)이 임하현의 오씨에게 장가들게 되면서 처가가 있는 내앞마을로 옮겨온 뒤로 내앞은 점차 의성 김씨 동족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내앞은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사대부의 이상적인 주거지 계거(溪居)⁵⁾지에 속한다. 높지 않은 산으로 둘러싸이고 골짜기마다 흐르는 물이 모여 시내를 이루어 자족할 수 있는 경지를 베푸는 곳, 내앞마을과 일치한다. 내앞은 약 1천7백만 평에 달하는 가장 큰 국면이 앞뒤 좌우의 산지로 둘러싸여 잘 보호된 내부 영역을 이루고, 주위의 지형지세가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오는 마을이다(이수건, 2000).

임하댐 건설로 인해 내앞의 옛 모습은 문헌과 회화자료에서만 볼 수 있다. 청계선생은 자신의 학문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았다. 또한 청계선생은 ‘의성김씨 내앞파’의 爲己之學의 이상향은 도연(陶淵)이라고 했다. 지금은 댐건설과 함께 도연일대는 수몰이 되었지만 도연은 내앞에서 먼 길을 돌아 조상에게로 가는 추념의 길이었다. 도연일대의 선경을 통해 풍류와 멋을 즐겼던 것이다. 마을입구를 지키는 수호림 개호송, 기암절벽 경포대 역시 임하댐 건설로 옛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

조선시대 손꼽히는 명당자리로 불려 졌던 내앞마을은 일제 강점기에 서간도로 마을주민 절반이 이주를 하여 내앞마을 주민 수는 급감하였다. 국권이 회복되었지만 현지사정으로 많은 내앞마을 출신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였다.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하였다 하여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내앞마을에 도입되면서 마을을 휘감던 개천이 복개되고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마을이 쪼개어지게 되어 옛 문헌에 나오는 아름다운 내앞마을의 모습을 지금 남아있는 흔적으로 유추할 따름이다(남양희, 2013).

(2) 내앞마을의 현황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동북쪽 천전리에 위치한 내앞마을은 천전(川前)의 한글 이름이다.



<그림 8> 내앞마을의 인구

내앞마을이 속한 임하면은 1,444세대, 3,2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내앞마을은 현재 146세대, 29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⁶⁾ 주변 독립운동기념관이 2007년 개관하여 내앞마을과 더불어 안동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내앞마을의 인구는 천전 1리와 천전 2리를 합쳐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또한 최근 10년의 인구수 변화를 보면 2007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8).

5) 한국역사지리-택리지에 별도로 산수 편을 전국의 경치 좋은 곳을 논한 다음 ‘시냇가에 사는 계서를 사대부가 가장 살만한 곳으로 꼽은 시냇가 근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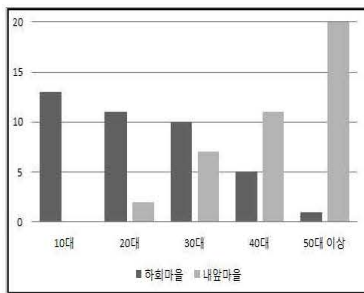
6) 안동시 통계자료, 2015, <http://www.andong.go.kr>, 자료검색일 : 2016.11. 23

내앞마을에는 보물 제 450호 인 의성 김씨 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67호 안동 귀봉종택(김수일의 종택)추파 고택(의성 김씨 추파 김정탁의 주택), 경북 기념물 제 137호 백하구려(김대락 선생의 고택), 몽선각(월탄김창석 선생의 정자) 등 과거의 모습을 담은 아름다운 고택들이 즐비하여 있고,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가옥도 많으며, 이러한 가옥의 구조를 보려고 방문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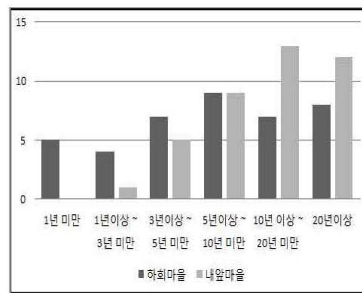
4. 연구대상에 대한 특성과 주민들의 의식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해 하회마을(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과 내앞마을(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을 각각 방문하였다. 우선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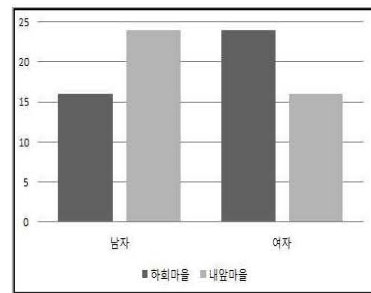
(그림 9)를 살펴보면, 하회마을보다 내앞마을의 평균 연령대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회마을의 4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 6명에 불과하지만 내앞마을의 응답자의 경우 40대 이상이 31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하회마을의 평균 거주기간 역시 내앞마을보다 짧다(그림 10). 하회마을의 경우 어느 정도 고른 분포를 띤 반면 내앞마을은 1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가 2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반을 넘는 수치였다. 마을 별로 하회마을은 여자의 응답빈도가, 내앞마을은 남성의 응답빈도가 높았다(그림 11).



<그림9> 응답자의 연령대



<그림10> 응답자의 거주기간



<그림11> 응답자의 성별

1) 경제적 측면

(1) 지역경제 성장

경제적 측면으로 첫 번째로 정해본 지표는 바로 ‘전통마을이 활성화되고 난 후 지역경제성장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가.’이다.

전통마을이 활성화된 후 경제성장에 두 마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 영향에 어떤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방문객증대’가 제일 많이 나타났다. 특히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90%의 응답자가, 내앞마을은 75%가 방문객증대를 선택하였다(표 2). 이 방문객이 증가하였다는 지표는 후에 환경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절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표2> 지역 경제 성장

단위 : 명(%)

구분	가계소득향상	지가상승	고용증대	방문객증대	기타	합계
하회마을	1(2.5)	2(5.0)	0(0.0)	36(90.0)	1(2.5)	40(100)
내앞마을	5(12.5)	1(2.5)	3(7.5)	30(75.0)	1(2.5)	40(100)

(2) 경제성장의 문제점

두 마을 모두 전통마을 활성화로 인해 긍정적인 경제성장을 겪었으나, 방문객이 증대하는 영향을 받다보니 성장에 부수되는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우선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방문객이 최근 들어서 매우 증가했기 때문에(그림 4) 다른 부분들보다 전통문화의 상품화와 관광객의 지나친 유입에 따른 혼란을 주로 선택하였다. 하회마을 주민들은 관광객이 증대하여 지역 경제가 성장한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모순적으로 방문객이 증대한 것을 경제성장의 문제점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표3> 경제 성장의 문제점

단위 : 명(%)

구분	전통문화의 상품화	환경오염정화비용 증대	외지상인의 상권점령	주민들간의 갈등	지나친 관광객의 유입	기타	합계
하회마을	8(20.0)	6(15.0)	4(10.0)	3(7.5)	8(20.0)	2(5.0)	40(100)
내앞마을	14(35.0)	3(7.5)	1(2.5)	6(15.0)	3(2.5)	4(10.0)	40(100)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바로 내앞마을의 설문응답인데 하회마을에 비해 관광지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5%의 주민들이 전통마을이 상품화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내앞마을의 경우 하회마을과 같이 관광지로서의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관광 상품과 같은 것이 마련되지 않았고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자체가 구경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주민들과의 갈등도 일어나고 후에 문화적 측면에서 확연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경제성장을 위한 보완점

두 마을 모두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성장을 더 원하는 입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주민들에게 지역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앞마을에 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지도가 높은 전통마을이기 때문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2.5%로 다소 낮았다. 이 항목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회마을이 과거와 달리 새로운 변화가 없이 획일화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어 색다른 홍보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회마을은 관광객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방문객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과반수가 넘었다. 그 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거나 하회마을만의 특산품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응답은 저조했다.

<표4> 경제성장을 위한 보완점

단위 : 명(%)

구분	지속적인 홍보	방문자 위한 새 프로그램	주민 참여 프로그램 다변화	특산품 브랜드화	기타	합계
하회마을	5(12.5)	24(60.0)	5(12.5)	5(12.5)	1(2.5)	40(100)
내앞마을	13(32.5)	9(22.5)	16(40.0)	0(0.0)	2(5.0)	40(100)

내앞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회마을에 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지도가 낮은 전통마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32.5%로 다소 높았으며, 하회마을에 비해 방문객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각각 22.5%, 40%의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나 주민 참여프로그램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주민들이 마을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환경적 측면

(1) 지역 환경에 대한 영향

환경적 측면의 첫 번째 지표는 지역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한 것이다.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보통의 수치가 높았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를 설문지 항목을 추가하여 물어보았다. 이에 쓰레기 발생에 대한 답변이 두 마을 합쳐서 45명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환경 문제 요인

단위 : 명(%)

구분	쓰레기 발생	소음	수질오염	식생파괴	기타	합계
하회마을	30(75.0)	10(25.0)	0(0.0)	0(0.0)	0(0.0)	40(100)
내앞마을	15(37.5)	5(12.5)	12(30.0)	2(5.0)	6(15.0)	40(100)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좋아졌음에도 이러한 수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환경적 측면의 두 번째 지표인 환경문제 개선에서 알 수 있었다.

(2) 환경문제 개선

앞선 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환경미화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두 마을을 합쳐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배출억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4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6> 환경문제 대책

단위 : 명(%)

구분	환경오염	오염 방지 및	식생보호	환경 미화	합계
	포스터 제작	배출억제 시설	지역 구축	지역주민 참여	
하회마을	4(10.0)	14(35.0)	2(5.0)	20(50)	40(100)
내앞마을	3(7.5)	20(50.0)	1(2.5)	16(40.0)	40(100)

이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환경미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하회마을의 경우 관광지화가 다소 진행되어 환경오염 방지 및 배출억제 시설을 구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큰 지원이 없는 내앞마을의 경우 환경 미화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시설개보수의 문제

(표 7)는 전통마을이 활성화된 후 시설개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으로 하회마을과 내앞마을 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표이다. 하회마을은 경제적 측면에서 방문객 증대를 90%의 주민이 선택할 정도로 활성화된 후에 많은 방문객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설개보수에도 내앞마을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방문객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제도적으로 전통마을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겪는다.

<표7> 시설개보수의 문제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하회마을	3(7.5)	9(22.5)	23(57.5)	5(12.5)	0(0.0)	40(100)
내앞마을	2(5.0)	3(7.5)	16(40.0)	16(40.0)	3(7.5)	40(100)

이에 반해 내앞마을은 비교적 시설개보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심층면담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하회마을과 달리 보존회와 같은 시설개보수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줄 기관이 마을 내에 없는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훨씬 많은데, 이는 방문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의 훼손이나 피해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두 마을 중 하회마을이 좀 더 시설개보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시설개보수 문제 개선

두 마을 모두 시설개보수에 대해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시설개보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주민이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에서 각각 30%, 12.5%로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라고 확인된다. 그런 이유로 시설개보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문항목을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8> 시설개보수 문제 개선

단위 : 명(%)

구분	방문자수 제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관련기관의 능동적 태도	제도적인 개선	기타	합계
하회마을	2(5.0)	11(27.5)	15(37.5)	12(30.0)	0(0.0)	40(100)
내앞마을	0(0.0)	10(25.0)	15(37.5)	11(27.5)	4(10.0)	40(100)

하회마을은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한편 많은 제한 역시 함께 겪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0%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았던 응답항목은 관련기관의 능동적인 태도로서 관련 기관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이 응답과 달리 주민들이 나서서 시설개보수에 참여해야한다는 응답도 27.5%에 달했다. 이는 시설개보수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내앞마을은 방문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문객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응답항목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관련기관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제도적인 지원도 열악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과 관련기관의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내앞마을도 하회마을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직접 시설개보수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응답도 25%를 나타내었다. 내앞마을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시설의 훼손이나 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기에 마을 내에서, 혹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3) 사회문화적 측면

(1)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첫 번째로 정해본 지표는 바로 ‘전통마을이 활성화되고 난 후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쪽으로의 영향이 있었는가.’이다. (표 9)와 같이 하회마을이 내앞마을보다 일상생활에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회마을과 내앞마을 모두 민속촌과 같은 관광지로 오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주민들이 각각 32.5%와 27.5%로 제법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심층면담에서 “아무래도 마을 자체가 관광지이다 보니 관광객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지 구분을 못해서 마음대로 들어오시거나 구경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도 부수되고요.”라는 응답으로 이어진다.

<표9> 일상생활에 미치는 요인

단위 : 명(%)

구분	타지역과의 교류증가	통행량 증가	민속촌과 같은 관광지로 오인	지역분위 기 변화	마을경관의 지나친 근대화	합계
하회마을	6(15.0)	7(17.5)	13(32.5)	11(27.5)	3(7.5)	40(100)
내앞마을	12(30.0)	10(25.0)	11(27.5)	7(17.5)	0(0.0)	40(100)

(2) 마을에 대한 자긍심

마을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자긍심에 대한 설문항목은 마을 간 아주 많은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내앞마을이 하회마을보다 마을에 대해 느끼는 자긍심이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마을 모두 자긍심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표 10).

<표10> 마을에 대한 자긍심

단위 : 명(%)

구분	아주 높아졌다	다소 높아졌다	보통이다	다소 낮아졌다	아주 낮아졌다	합계
하회마을	3(7.5)	18(45.0)	18(45.0)	0(0.0)	1(2.5)	40(100)
내앞마을	10(25.0)	19(47.5)	11(27.5)	0(0.0)	0(0.0)	40(100)

하지만 흥미로운 결과는 (표 11)에서 발견되었는데, 자긍심을 느끼는 요인이 눈에 띄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하회마을은 압도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요인을 47.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내앞마을은 독립운동의 성지인 요인을 65%로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마을에 상당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11> 자긍심을 느끼는 요인

단위 : 명(%)

구분	세계문화 유산 등재	독립운동 의 성지	풍수지리적 가치가 있음	현대 사회 속 전통문화 보존	유고문화의 원형 간직	합계
하회마을	19(47.5)	1(2.5)	4(10.0)	1(2.5)	1(2.5)	40(100)
내앞마을	0(0.0)	26(65.0)	2(5.0)	0(0.0)	0(0.0)	40(100)

(3) 지역프로그램의 주민참여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뤄야 할 요소 중 마지막으로 지역 프로그램에 얼마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택하였다. (표 12)와 같이 하회마을보다 내앞마을의 주민들이 지역 프로그램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회마을의 경우 지역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는 주민들은 관광객이 마을에 방문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부분 진행한다.

<표12> 지역프로그램의 주민 참여도

단위 : 명(%)

구분	항상 참여	대체로 참여	그냥 그렇다	대체로 참여안함	항상 참여안함	합계
하회마을	2(5.0)	9(22.5)	17(42.5)	12(30.0)	0(0.0)	40(100)
내앞마을	5(12.5)	19(47.5)	9(22.5)	5(15.0)	1(2.5)	40(100)

하회마을의 경우는 예상과 같이 관련기관에서 고용되어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증대된다는 응답이 내앞마을이 0%인 것에 비해 높게 나왔다. 제일 높은 응답은 지역주민이라는 자긍심으로써 하회마을 주민들 중 소득증대를 위해서 참여하는 주민도 있지만 지역을 위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7.5% 이다. 반대로 내앞마을은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증대보다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여가생활을 즐기거나,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하는 응답이 고르게 나왔다. 이러한 양상은 두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장점과 문제점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표 13).

<표13> 지역 프로그램 참여 이유

단위 : 명(%)

구분	정보 획득	지역주민이라는 자긍심	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증대	여가생활	기타	합계
하회마을	5(12.5)	15(37.5)	10(25.5)	9(22.5)	1(2.5)	40(100)
내앞마을	12(30.0)	15(37.5)	0(0.0)	12(30.0)	1(2.5)	4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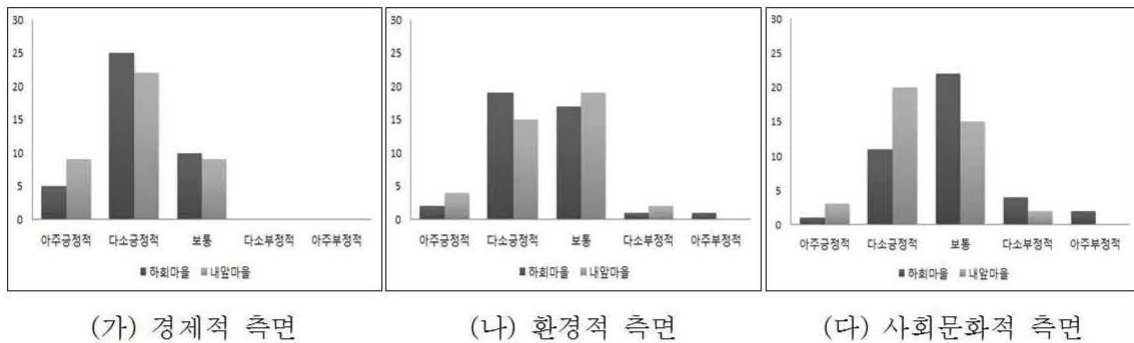
5.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의 지속가능성

1)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의 비교

앞서 4장에서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두 마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각 마을의 특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각 마을의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두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또한 각 마을의 주민 대표 2명을 통해 실시하였던

심층면담을 활용하여 더욱 깊이 있게 접근하려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림 12)는 각 측면별로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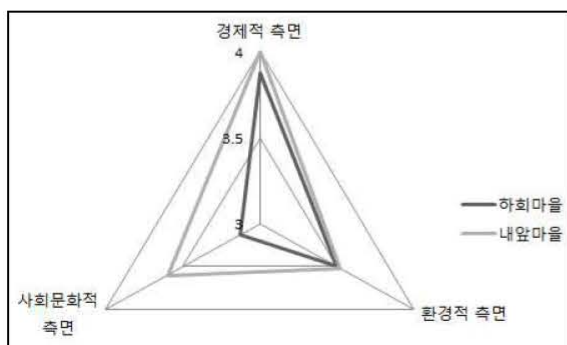


<그림12> 지속가능성의 각 측면별 비교

(가)의 마을별 경제적 측면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하회마을과 내앞마을 모두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다. 전통마을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두 마을 모두 부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통마을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나)의 환경적 측면에서 마을별로 전통마을이 활성화 된 이후, 지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그래프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회마을이 내앞마을보다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부분이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의 관광지화가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그래프이다. 내앞마을보다 하회마을이 더욱 부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하회마을이 내앞마을보다 관광지화가 더욱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차이가 나는 관광객 때문이다. 하회마을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관광객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3> 하회마을과 내앞마을 비교

(그림 13)은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의 지속가능성의 각 측면에 대한 오점척도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을 비교하였을 때, 값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내앞마을에 비해 하회마을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오점척도 값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11)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독립문화의 성지라는 내앞마을의 경우 그 요소로 인하여 마을이 관광지가 된 것에 대해 자

긍심을 느끼는 반면, 하회마을의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자긍심이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그에 따른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 것이다.

2) 하회마을의 지속가능성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본격적으로 마을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눈에 띄게 겪은 측면은 경제적 측면이다. 방문객이 예전과 한눈에 비교될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방문객 증가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가져왔다.

심층면담 중에는 “방문객이 증대하면서 겪은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직종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요한 수입원들이 세분화되거나 마을에 활력이 생기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다른 농촌마을에 비해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며 방문객이 증대하면서 생긴 마을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 역시 존재하였는데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곳에 도시에 거주하시던 어르신들이 추억에 나락을 한 줌 주워가시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행위가 늘어난다면 사실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방문객 증대로 인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하회마을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예측해볼 수 있는데, 하회마을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 대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아주 높고, 방문객의 증대로 인하여 전통마을이라는 관광상품을 통하여 지속가능할 것이다(그림 12). 하지만 전통마을의 상품화와 지나친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관광객을 위한 새 프로그램 편성에서 전통마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광객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안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회마을이 가장 크게 겪은 방문객의 증대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설문지에서 주민들은 환경적인 문제로 쓰레기 발생과 소음에 응답하였다. 심층면담에서는 “우선 쓰레기가 가장 눈에 띄게 늘었죠. 배출량 역시 늘었고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 역시 늘어났습니다. 또 저희가 야간에 차량 통제를 할 수 없는데 관광객이 야간에 담벼락에 차를 들이 받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만송정의 범위가 크지 않은데 관광객의 통제가 힘들어 나무의 훼손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대가 여러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표 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오염 방지 및 배출억제 시설을 만들어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환경 미화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개보수의 문제는 방문자 수의 영향을 받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법 규제가 심화됨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도 방문객의 지나친 유입은 여러 문제점을 겪게 하였다. 우선 다른 민속촌에 비하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 의해 주민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피해가 늘어났다. 다른 민속촌의 경우 빈 터에 민속촌을 지었지만 하회마을의 경우에는 집집마다 빈 가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하회마을이 활성화된 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된다.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문중문화나 집안의 제사문화 등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재정적 마련이 구축되었다. 두드러진 것은 마을 주민들의 자긍심이 옛날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지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지만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전통문화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심층면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세계문화유산 지정 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하회마을에 살아간다는 것,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하회마을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대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상생활과 관광공간의 분리나 관광 가능한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내앞마을의 지속가능성

내앞마을의 경우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경제적 측면만 적절히 개선된다면 지속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되었다. 내앞마을은 하회마을만큼 방문객이 증대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문객이 증대한 것을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하회마을은 부정적인 영향을 다소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내앞마을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방문객 증대로 인하여 소득이 증대되거나 직종이 다양해지는 등의 변화는 없었지만 방문객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으로 부정적인 영향도 받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지원이 하회마을로 치중되기 때문에 내앞마을에서 방문객을 위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한계를 겪는다. 하여 앞으로 내앞마을에 관해서는 독립문화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내앞마을을 직접 답사하였을 때 내앞마을이 하회마을에 비해 환경적으로 받는 피해가 가시적으로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길가에 쓰레기 찾기 어려웠고, 방문객이 많지 않은 편이라 소음 문제 역시 전혀 없었다. 경관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으며 정말 조용하고 진정한 전통마을의 모습을 간직한 마을이라고 생각된다.

심층면접 시에도 내앞마을은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다소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가 응답이 많았다. 하회마을보다 체계적인 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손상되지 않은 환경을 보존하려는 마을 주민들의 심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내앞마을은 우선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앞마을의 가장 큰 강점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주민들의 자긍심이라고 생각된다. 백하구려에 거주 중이신 주민 분을 심층면담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셨다. “하회마을은 우리 마을과 비교할 마을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이자 이 마을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독립운동의 성지이다. 마을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마을에 사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큰 의미이다.” 이렇듯이 마을에 대한 자긍심 하나만으로 이 마을이 사회문화적 측면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앞마을의 주민들은 방문객이 증대함에 따라 집 앞의 관광표지판만 보고 간혹 몇 대로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내앞마을 입구에 이를 주의해달라는 표지판을 세우거나, 관광객으로 하여금 민속촌과 전통마을은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피해는 감수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고 응답하였고, 오히려 타 지역 사람들과의 교류가 증대하여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안동의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을 사례로 들어서 연구하였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은 상의한 결과를 내놓았다. 하회마을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한편, 내앞마을은 그러한 지원이 부족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하회마을의 경우 보조금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지만 인력적으로 부족한 면을 보충해야하고, 내앞마을의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내앞마을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하회마을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지나친 유입으로 인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하여 내앞마을은 앞으로도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지속해야 할 것이고, 하회마을은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두 마을 모두 전통마을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의 부분에서는 하회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하회마을과 내앞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하회마을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고, 내앞마을의 경우 환경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관광객의 수가 적어서 크게 문제점이 없지만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높은 지속가능성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운정, 2013, '독립운동의 성지' 내앞마을, 안동독립기념관 기획연재
- 김미연, 2013,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법론 연구, 경성대학교 학위논문
- 남양희, 2013, 스토리텔링을 통한 내앞마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안동대학교 학위논문
- 손상락, 2016, 세계유산 하회마을 가이드북(세계유산 한국의 역사 하회), 안동시
- 송주연, 2014, 한국의 도시성장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학위논문
- 안동시,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
- 안동시, 해당연도, 통계연보
- 안동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 세계유산 활용·홍보사업 중장기계획
- 이수건 외, 2000, 『내앞(川前)500년: 문호형성에서 독립운동까지』, 청계선생탄신 오백주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조아라, 2010, 전통주거지역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학위논문
- 최병두 외 3인, 2004,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도시화 -개념적 고찰-, 대한지리학회, 39(1), 70-87
- 국립민속박물관, <http://www.nfm.go.kr/>
-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 안동시청, <http://www.andong.go.kr/>
- 안동하회마을, <http://www.hahoe.or.kr/>
- 통계청, <http://www.kostat.go.kr/>